

《靈樞·經筋》의 서술 방법과 공통 용어에 대한 연구

김민식^{1,5}, 김창건², 김소림³, 이은용⁴

¹미르한의원, ²청명한의원, ³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⁴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의학교실

A Study on the Descriptive Method and Common Terminology of 「Yeongchu·Gyeonggeun(靈樞·經筋)」

Min-Sik Kim^{1,4}, Chang-Geon Kim², So-Rim Kim³, Eun-Yong Lee⁴

¹Mir Korean Medicine Clinic, ²CheongMyeong Korean Medicine Clinic

³Bucheon Jaseng Hospital of Korean Medicine

⁴Departmen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Semyung University

Objectives & Methods: The entire 《Lingshu·Jingjin》 content was analyzed to find repetitive patterns, as well as to analyze commonly used terms. Through this, the guidelines for interpretation were presented.

Results & Conclusions: 《Lingshu·Jingjin》 is not a question-and-answer format, but a simple enumerated narrative format. There is no part corresponding to the introduction, only the descriptions of 12 individual Meridian-muscle exist. Each Meridian-muscle is divided into ‘Flow of Muscle Mechanics(流走)’ part and ‘Diseases’ part, and ‘Flow of Muscle Mechanics’ of each Meridian-muscle can be divided into ‘Main Flow’ and ‘Branch’. ‘Main Flow’ is the most central ‘Flow’ in each ‘Meridian-muscle’, and ‘Branch’ is the part where ‘Main Flow’ ends and the description of another ‘Flow’ begins. ‘Branch’ has different expressions according to the importance. The expression also varies depending on the dynamics. ‘Meridian-muscle’ should be interpreted based on this.

Key Words : Meridian-muscle(Jingjin), Lingshu, Flow of Muscle Mechanics(流走, liuzou)

서론

經筋은 《靈樞·經筋》에서 최초로 나타나며 《黃帝內經》에서는 이 부분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로, 《靈樞·經筋》은 문답식이 아니며,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고, 개별 筋의 분포에 대한 내용만 기술되어 있다¹⁾.

경근에 대한 현대의 연구 결과는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는 《靈樞·經筋》에 대한 분석

차이가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경근의 해부학적 연구는 《靈樞·經筋》을 충분히 분석한 후 해부학을 적용해야 하는데, 학술적 연구가 충분히 누적된 해부학의 적용에 대한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靈樞·經筋》을 분석하는 과정과 기준을 제시한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이다.

《靈樞·經筋》을 현대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가장 먼저 ‘筋’이 의미하는 인체의 구조물이 무엇인지

· Received : 21 October 2022 · Revised : 10 February 2023 · Accepted : 14 February 2023
· Correspondence to : Eun-Yong Lee
College of Korean Medicine, Semyung University
65, Semyeong-ro, Jecheon-si, Chungcheongbuk-do, Republic of Korea. 27136
Tel : +82-43-841-1735, Fax : +82-43-856-1731, E-mail : acupley@semyung.ac.kr

명확하지 않고, 그 다음은 三陰三陽이 포함된 명칭의 의미도 모호하다. 이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靈樞·經筋》의 서술 자체가 해부학적 관점의 설명을 담고 있는 것 같지만, 현대 해부학의 관점에서 분석하기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위치가 모호하거나 분석이 어려운 부분이 반복되어 해부학의 적용이 매우 어렵다. 과거와 현대의 사용 용어가 다른 이유가 근본적 원인이겠지만, 《靈樞·經筋》에서 사용된 용어에 형이상학의 개념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한다.

이번 연구는 《靈樞·經筋》의 전체 본문을 분석하여 《靈樞·經筋》 기술에 나타나는 패턴을 분석하였다. 경근의 기술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었고, 이에 대한 이해는 경근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고, 이때 사용되는 용어의 분석은 《靈樞·經筋》에 대한 현대적 해석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론

1. 관련 연구 결과의 정리

1) 《靈樞·經筋》의 三陰三陽은 《素問·陰陽離合論》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며, 經筋의 三陰三陽은 인체의 부위에 대한 표현이다. 三陽은 인체의 외부로서 太陽은 인체의 背面, 少陽은 인체의 外側面, 陽明은 인체의 前面을 의미하며, 三陰은 體幹에서는 인체의 내부를 의미하지만, 下肢에서는 좌우 다리가 맞닿는 부분으로 太陰은 下肢 내측을 기준으로 제일 앞쪽이고, 제일 뒤쪽이 少陰이며, 厥陰은 하지의 가운데 부분, 즉 겹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을 의미하므로, 經筋의 명칭은 먼저 三陰三陽에 해당되는 부위가 정해진 상태에서 이 부위에 분포한 구조물인 筋에 붙여진 명칭이다. 따라서 《靈樞·經筋》이 서술될 때 기준이 된 자세가 존재하는데, 기립상태에서 발을 앞으로 향하며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펴고, 엄지손가락을 자연스럽게 한 상태에서 손등이 바깥쪽으로 향하는 자세이다¹⁾.

2) ‘筋’은 해부학의 myofascia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근외막(epimysium)과 근주막(perimysium)이 해당되며, 이들의 연장인 tendon과 ligament도 포함된다. 또한 전신의 근막을 지칭하는 표현인 fascia도 ‘筋’의 범주이다. ‘肉’은 근내막(endomysium), 근섬유(myofiber), 지방층(adipose layer or tissue)을 의미하는 것이다. ‘經筋’은 인체의 움직임과 관련된 ‘肌肉’을 포괄한 기능적 관련성이 있는 전신의 근간이 되는 종적(longitudinal) 근육근막(myofascia)의 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²⁾.

2. 《靈樞·經筋》의 原文은 《類經》³⁾과 《善乎靈樞》⁴⁾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고 찰

<經筋>은 《靈樞》에서 13번째 편으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12개의 개별 筋에 대한 서술만이 존재한다. 또한 문답식의 서술이 아니며, 나열의 형식이다¹⁾. 이는 전후 10편에서 14편인 <經脈>, <經別>, <經水>, <骨度>와 완전히 다른 형식과 구성이어서 <經筋>이 확연하게 다른 양식으로, 다른 부분들은 모두 黃帝와 雷公, 岐伯, 伯高的 문답 형식이고,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비해 <經筋>은 그런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靈樞·經筋》의 서술 순서를 살펴보면 《靈樞·經脈》과는 순서가 다르며, 개별 경근은 足太陽之筋, 足少陽之筋, 足陽明之筋, 足太陰之筋, 足少陰之筋, 足厥陰之筋, 手太陽之筋, 手少陽之筋, 手陽明之筋, 手太陰之筋, 手心主之筋, 手少陰之筋의 순서로 서술되어 太陽, 少陽, 陽明, 太陰, 少陰, 厥陰의 순서로 하지 부분을 먼저 설명하고, 이후 상지 부분은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지는데, 陽의 부분은 같은 순서로 설명하지만, 陰의 부분에서는 太陰, 心主之筋, 少陰의 순서로 설명하고 있다.

《靈樞·經筋》의 三陰三陽은 《素問·陰陽離合論》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인체의 부위에

대한 표현이다¹⁾. 정리하면, 三陽은 인체의 외부로서 太陽은 인체의 背面, 少陽은 인체의 外側面, 陽明은 인체의 前面을 의미하며, 三陰은 體幹에서는 인체의 내부를 의미하지만, 下肢에서는 좌우 다리가 맞닿는 부분으로 太陰은 下肢 내측을 기준으로 제일 앞쪽이고, 제일 뒤쪽이 少陰이며, 厥陰은 하지의 가운데 부분, 즉 겹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을 의미하므로, 經筋의 명칭은 먼저 三陰三陽에 해당되는 부위가 정해진 상태에서 이 부위에 분포한 구조물인 筋에 붙여진 명칭이다¹⁾.

《靈樞·經筋》은 ‘침구의학적 표준자세(Standard Position of Acupuncture Medicine)’¹⁾라고 할 수 있는 기립 상태에서 발을 앞으로 향하며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펴고, 엄지손가락을 자연스럽게 한 상태에서 손등이 바깥쪽으로 향하는 자세를 기준으로 서술되어 있어 위치, 방향 등은 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靈樞·經筋》은 인체 陽 부분의 후면, 측면, 전면을 설명하고, 陰 부분에서 앞쪽, 뒤쪽을 설명하고 陰 부분 중 드러나지 않는 인체의 내측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상지의 陰 영역에서는 太陰, 心主之筋, 少陰으로 설명 순서가 바뀐다. 상지 부분에서 ‘手心主之筋’을 ‘手厥陰之筋’의 의미로 보는 경우⁵⁻⁷⁾가 있으나 이 부분은 김 등이 “上肢에서 手厥陰之筋은 존재하지 않고 手厥陰之脈만이 존재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일단 厥陰의 영역이 없기 때문은 아니다. 그렇다면 經脈과 經筋의 차이인 구조물 때문으로, 厥陰이 겹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의 의미이기에, ‘筋’으로 규정되는 구조물 중 해부학적으로 interior의 위치에만 존재하는 구조물이 없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¹⁾라고 설명한 부분을 통해 보면 단순히 ‘手心主之筋’을 ‘手厥陰之筋’의 의미로 볼 수 없다.

‘筋’의 해부학적 구조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김 등²⁾은 연구를 통해서 해부학의 myofascia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근 외막(epimysium)과 근주막(perimysium)은 물론이

고, tendon과 ligament도 포함된다. 이 연구에서는 《黃帝內經》에서 사용된 ‘筋膜’은 해부학적으로 ‘힘줄(腱, tendon)’을 의미한다는 것 또한 연구되었는데, 현대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많이 다르다. 전신의 근막을 모두 의미하는 fascia는 모두 ‘筋’의 범주이다. 또한 ‘肉’은 근내막(endomysium), 근섬유(myofiber), 지방층(adipose layer or tissue)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경근에서 사용되는 ‘근’의 의미는 근막만을 의미하지만, 이 속에는 ‘肉’의 의미가 일정 부분 포함될 수밖에 없는데, 현대에 筋肉으로 번역되는 ‘muscle’의 범주에는 근내막(endomysium), 근섬유(myofiber), 지방층(adipose layer or tissue)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구조물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때문에 경근의 정의에 대한 결론은 “‘經筋’은 인체의 움직임과 관련된 ‘肌肉’을 포괄한 기능적 관련성이 있는 전신의 근간이 되는 종적(longitudinal) 근육근막(myofascia)의 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²⁾.”로 내려졌다. ‘筋’과 분리할 수 없는 ‘肉’의 구조물이 같이 배열되어 있다고 하여도, 경근은 표현 그대로 ‘myofascia’에 대한 설명임을 의미한다. ‘肉’은 ‘筋’에 싸여진 구조물로 ‘經肉’이라는 표현은 존재할 수 없다.

《靈樞·經筋》의 서술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서론 또는 개요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고, 개별 筋에 대해서 바로 설명하고 있다. 모든 筋의 설명방식은 동일하여, 명칭 이후 ‘起於~’로 시작하는 ‘流走’에 대한 설명이 있고, 이 설명 후 ‘其病~’으로 시작하는 ‘병증’에 대한 설명이 있다. 마지막에는 특정 경근에 소속하여 설명하기 곤란한 병증에 대한 서술이 별도로 약간 있다.

이 부분에서 경근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分布’로 표현^{6,8)}하지만, 여기에서는 ‘流走’를 사용하였다. 經筋은 고정된 구조물이라는 인식을 기본으로 하므로 ‘分布’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靈樞·經筋》은 항상 “起於~”로 시작하여 “結”의 의미로 종료되고 있고, “循, 并, 挾, 入, 從, 起, 乘, 出, 貫,

交, 走, 至, 繞, 行”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서술의 특성과 용어들을 ‘分布’로 설명하기에는 의미가 축소되어 경근 본래의 의미를 손상시킬 수 있기에 경근도 ‘筋의 흐름’이라는 의미가 포함된 용어가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流走’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¹⁾.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 경근은 ‘流走’의 개념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고정된 구조물이 유주의 개념으로 사용되려면 무엇인가 ‘움직임’의 개념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는 원문을 분석해보면 경근의 배열에 관련되어 역학관계로 볼 수 있다. 역학관계를 ‘流走’의 개념으로 판단한 이유는 ‘筋’으로 정의된 근육근막(myofascia)의 특성과 기능 때문이다²⁾. ‘流走’의 개념과 비슷한 개념을 담은 연구는 Tomas W. Myers의 연구⁹⁾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개별 경근의 설명을 세분화해서 보면, 처음 중심이 되는 유주에 대한 서술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분지에 대한 서술이 있으며, 마지막은 해당 병증에 대한 서술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서술 방식에 따라서 각 경근의 유주를 ‘중심유주’와 ‘분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개별 경근 시작 부분의 ‘起於~’는 ‘중심유주’로, ‘其支者’ 등은 ‘분지’로 분류할 수 있다. ‘병증’ 부분인 ‘其病~’ 부분은 이 유주의 순서에 맞춰서 병증을 설명하고 있다.

유주를 중심유주와 분지로 나누어 분류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건 중간에 서술을 종료하고 ‘其~者’ 등으로 별도로 유주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심유주에 대한 서술의 양은 경근에 따라서 분량이 많이 다르다. 足少陽之筋, 足太陰之筋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중심유주는 짧고, 분지에 대한 설명이 길고, 足少陰之筋의 경우는 중심유주만으로 전체를 설명한다. 중심유주와 분지의 분류 기준은 단순히 문장의 형태이다. 기능적 부분을 고려했을 때 분류의 기준은 바뀔 수 있다. 중심유주 부분은 명확한 형태이지만, 분지로 일단 분류한 부분은 ‘其~者’와 같은 문장 형태 때문이다.

중심유주는 ‘起於~’로 시작하는 부분으로 개별 경

근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유주이다. 전체 중심유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足太陽之筋] “起於足小指, 上結於踝, 邪上結於膝, 其下循足外側, 結於踵, 上循跟, 結於臑.”

[足少陽之筋] “起於小指次指, 上結外踝, 上循脛外廉, 結於膝外廉.”

[足陽明之筋] “起於中三指, 結於跗上, 邪外上加於輔骨, 上結於膝外廉, 直上結於髀樞, 上循脇屬脊.”

[足太陰之筋] “起於大指之端內側, 上結於內踝.”

[足少陰之筋] “起於小指之下, 竝足太陰之筋, 邪走內踝之下, 結於踵, 與太陽之筋, 合而上結於內輔之下, 竝太陰之筋而上循陰股, 結於陰器, 循脊內挾髀, 上至項, 結於枕骨, 與足太陽之筋合.”

[足厥陰之筋] “起於大指之上, 上結於內踝之前, 上循脛, 上結內輔之下, 上循陰股, 結於陰器, 絡諸筋.”

[手太陽之筋] “起於小指之上, 結於腕, 上循臂內廉, 結於肘內銳骨之後, 彈之應小指之上, 入結於腋下.”

[手少陽之筋] “起於小指次指之端, 結於腕中, 循臂, 結於肘, 上繞臑外廉, 上肩走頸, 合手太陽.”

[手陽明之筋] “起於大指次指之端, 結於腕, 上循臂, 上結於肘外, 上臑, 結於髃.”

[手太陰之筋] “起於大指之上, 循指上行, 結於魚後, 行寸口外側, 上循臂, 結肘中, 上臑內廉, 入腋下, 出缺盆, 結肩前髃, 上結缺盆, 下結胸裏, 散貫臍, 合臍, 下抵季脇.”

[手心主之筋] “起於中指, 與太陰之筋並行, 結於肘內廉, 上臂陰, 結腋下, 下散前後挾脇.”

[手少陰之筋] “起於小指之內側, 結於銳骨, 上結肘內廉, 上入腋, 交太陰, 挾乳裏, 結於胸中, 循臂, 下繫於臍. 其病內急心承伏梁, 下爲肘網.”

이 부분의 역할이 해당 경근의 주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중심유주가 각 경근의 전체 기능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 분지의 유무에 따라서 내용의 차이가 많기 때문이다. 足太陽之筋, 足少陽之筋, 足陽明之筋, 足太陰之筋은 중심유주가 전체 유주의 일부분에 불과할 정도로 분지의 양이 많고 다양하다.

이에 반해 足少陰之筋, 足厥陰之筋은 중심유주가 전체 유주로 분지가 없다. 手太陽之筋, 手少陽之筋, 手陽明之筋은 중심유주가 전체의 절반 정도이고, 手太陰之筋, 手少陰之筋은 중심유주만 있고, 手心主之筋은 분지가 존재한다.

‘起於~’로 시작된 서술이 종료되고 다시 유주에 대한 서술이 시작되는 부분을 모든 용례를 통해 살펴보면, ‘其別者’, ‘其直者’, ‘其支者’, ‘其內者’, ‘直者’, ‘支者’ 등으로 시작하는 부분이다. 足太陽之筋의 경우는 분지의 시작 지점을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근의 경우는 분지의 시작 지점 대부분을 유추할 수 있다.

분지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陽經筋에만 존재하여 陰經筋은 중심유주만으로 구성되어 분지가 없다. 분지가 존재하는 일부 예외는 足經筋에서는 足太陰之筋으로 ‘其直者’와 ‘其內者’가 나오고, 手經筋에서는 陰經筋으로 추정되는 手心主之筋에서만 ‘其支者’가 1회 나온다. 手心主之筋은 《靈樞·經脈》에서의 ‘心主手厥陰心包絡之脈’과 같은 부분으로 생각되지만, 특이하게 陰經筋이라는 명칭적 표현이 없다. 陰經筋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手厥陰之筋이 존재하지 않고, 이 경근이 서술되어야 할 자리에 手心主之筋이 서술되어 있어서 《靈樞·經脈》과 비교하여 추정하는 것뿐이다. 그나마 순서도 足陰經筋의 순서와 달라서 手心主之筋의 경우는 이러한 이유로 《靈樞·經筋》 전체에서 파격의 형태를 가진다. 이는 후대에 누군가가 추가해서 넣었다고 의심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분지가 陽經筋에만 존재하는 이유는 陰經筋과 陽經筋의 역할 차이 때문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支持의 측면이 강한 陰經筋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분지가 존재할 이유가 없으나, 陽經筋의 경우는 움직임을 주관하는 것으로 다양한 분지가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추정한다.

‘其別者’, ‘其直者’, ‘其支者’, ‘其內者’ 등으로 시작하는 부분의 명칭이 다른 이유는 해당 분지의 기능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쓰인 ‘其’는 소속

경근을 의미하는 것으로, ‘其’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것인가 여러 문헌을 살펴봐왔으나,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는 해당 경근을 의미하는 대명사로 판단된다. 이 대명사는 특별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其’가 붙은 분지의 경우 주요 유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直者’, ‘支者’ 등과는 차이가 있다.

《靈樞·經筋》에 사용된 분지에 관련된 용어는 《靈樞·經脈》과 《靈樞·經別》에 일부 사용되지만, 이외에 《黃帝內經》에서 사용된 용례는 없다. 《靈樞·經脈》에서는 ‘其直者’, ‘其支者’, ‘其別者’가 사용되었고, 《靈樞·經別》에서는 ‘直者’, ‘別者’가 사용되었다. 《靈樞·經脈》과 《靈樞·經別》에 사용된 것과 《靈樞·經筋》에서 사용된 것이 같은 의미인지 다른 의미인지는 분석할 수 없었는데, 《靈樞·經脈》과 《靈樞·經別》에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 해부학에서 어느 구조물에 대한 내용인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지에 대한 표현을 《靈樞·經筋》으로 국한하여 분석해보면 사용 방법의 규칙성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다. 분지로 우선 분류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세분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其別者’로, 《靈樞·經筋》 전체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고, 오로지 足太陽之筋에서만 1회 등장한다. “足太陽之筋, 起於足小指, 上結於踝, 邪上結於膝, 其下循足外側, 結於踵, 上循跟, 結於臑. 其別者, 結於踰外, 上臑中內廉, 與臑中并上結於臂, 上挾脊上項.”으로 전체에서 용례가 1회뿐이어서 근거가 빈약하지만, 足太陽之筋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중심유주를 한 번에 서술하기 어려워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눈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인체를 기준으로 足太陽과 대칭의 위치에 존재하는 부분은 足陽明인데, 足陽明之筋의 중심유주는 체간까지 올라와 척추까지 이어진다(屬脊). 이에 비해 足太陽之筋의 중심유주를 분류기준인 ‘起於~’로 서술된 부분으로만 판단하면 足太陽之筋의 중심유주는 ‘臑’ 부분에서 종료된다. 이는 전후의 대칭에 있어서 균형이 상당히 무

너지는 상태가 되는데 ‘其別者’ 부분을 포함하면 체간까지 올라와 대칭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된다. 둘째, 足太陽之筋은 ‘其別者’ 부분에서 이미 지나온 발 부분부터 다시 시작한다. 踵(중), 跟(근), 踰(단) 등 용어는 조금 다르지만 발뒷꿈치를 의미하는 부분에서 다시 시작하는데, 중심유주와 동일한 부위를 유지하는 분지를 상세히 설명한 용례는 이후에 없다. ‘其別者’라는 표현 자체에 ‘중심유주 중 나누어진 부분(別)’으로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其別者’는 또 다른 중심유주로 분류해야 하고, 해석은 ‘별도로 나뉨는 중심유주는’으로 하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살펴볼 ‘其直者’는 《靈樞·經筋》의 총 다섯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데, 처음 4개의 경근, 즉 足太陽之筋, 足少陽之筋, 足陽明之筋, 足太陰之筋에만 나온다.

[足太陽之筋] “其直者, 結於枕骨, 上頭下顙, 結於鼻.”

[足少陽之筋] “其直者, 上乘眇季脇, 上走腋前廉, 繫於膺乳, 結於缺盆.”

[足陽明之筋] “其直者, 上循髀, 結於膝.” / “其直者, 上循伏兔, 上結於髀, 聚於陰器, 上腹而布, 至缺盆而結, 上頸, 上挾口, 合於頰, 下結於鼻, 上合於太陽, 太陽爲目上綱, 陽明爲目下綱.”

[足太陰之筋] “其直者, 絡於膝內輔骨, 上循陰股, 結於髀, 聚於陰器, 上腹, 結於齊, 循腹裏, 結於肋, 散於胸中.”

‘其直者’가 왜 이 부분에만 존재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최근까지의 연구는 ‘其直者’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其直者’가 足陽經筋들과 足太陰之筋에서만 존재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其直者’가 등장하는 경근이 모두 인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경근이라는 점이다. 足太陽之筋, 足少陽之筋, 足陽明之筋은 명확하게 인체의 앞뒤와 측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주요

경근이고, 내측에서는 균형에서 제일 중요한 엄지발가락과 관련 있는 足太陰之筋이 포함되었다. 이 경근들만으로도 인체는 균형을 잡고 기립할 수 있다. 足少陰之筋이나 足厥陰之筋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균형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근이 이들이라는 것이다. 이는 이 경근이 역학적 기반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데, 같은 관점에서 手經筋에 ‘其直者’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사람이 서 있으려면 성인을 기준으로 발목의 균형이 가장 우선이고, 무릎과 고관절의 신전이 중요하다. 세 관절 중에서 한 부분의 균형만 무너져도 서 있는 것이 쉽지 않다. 인체가 기립하려면 배측은 발목, 무릎, 고관절뿐만 아니라 척추를 거쳐서 머리까지 역학의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외측면은 정확하게 발목관절의 균형을 잡아주면 되고, 전면의 경우는 무릎 부위가 신전되어야 해서 허벅지 부분의 역할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고관절의 신전을 유지해야 해서 복부까지 힘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하지는 둘로 이루어져 좌우로 약간 벌려 엄지발가락을 중심으로 균형을 함께 잡아야 한다. 즉 太陽 부위에 해당하는 인체의 후면은 발에서 머리까지 하나의 역학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足太陽之筋은 ‘其別者’를 포함하는 중심유주가 발에서 後頭下까지 모든 관절을 포함하여 서술되어 있다. 少陽 부위에 해당하는 인체의 외측은 발목이 균형의 중심이며, 足少陽之筋의 중심유주는 무릎까지 서술되어 있다. 측면에서의 무릎 균형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무릎은 경첩관절이기 때문이다. 陽明 부위에 해당하는 인체의 전면은 무릎을 포함하여 복부까지가 중요하며 足陽明之筋은 이 부분을 모두 포함하여 중심유주가 서술되어 있다. 좌우로 갈라진 하지의 내측 부위는 발의 내측과 발목의 내측이 중요한데 足太陰之筋의 중심유주는 이 부분까지 서술되어 있다. 즉 足太陽之筋, 足少陽之筋, 足陽明之筋, 足太陰之筋의 중심유주는 모두 인체의 기립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其直者’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足太陰之筋에서와 같이 실체의 연결이 없는 경우에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足太陰之筋의 중심유주는 ‘上結於內踝’에서 끝나는데, 이후 ‘其直者, 絡於膝內輔骨’로 문장이 이어져 내과에서 무릎 내측사이에는 유주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때의 연결을 ‘其直者’로 하고 있다. 이 부분에 유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絡於~’는 ‘結於~’로 바뀌어야 한다고 《類經》에서는 주장하고, 《太素》, 《千金》, 《聖濟總錄》에서는 원문 자체가 ‘結於~’로 되어 있다. ‘內踝’에서 ‘膝內輔骨’로 ‘곧게 올라온다’고 해석하였기 때문에 ‘絡’이 아니고, ‘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발목 내과에서 무릎 내측사이에는 ‘筋’으로 규정할 수 있는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絡於~’로 서술되어 있다. 이 부분을 분석해보면 실체의 연결이 아닌 역학의 연결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足太陰之筋의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靈樞·經筋》에 사용된 ‘其直者’를 하나씩 살펴보면 足太陽之筋의 “其直者, 結於枕骨, 上頭下顙, 結於鼻.” 부분은 단순히 방향성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이전 문장이 “上挾脊上項.”에서 종료되고, 《靈樞·經筋》의 다른 서술 패턴과 비교해보면 많이 이상한 것을 알 수 있다. “上挾脊上項, 結於枕骨.”로 서술되었어야 할 문장이 “上挾脊上項.”에서 끝나고 이후 ‘其支者’에 대한 서술이 있을 후, 다시 “其直者, 結於枕骨”로 서술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단순한 유주의 서술이었다면 “上挾脊上項, 結於枕骨.”로 서술되면 되는데, 어떤 이유로 현재와 같이 서술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足少陽之筋의 “其直者, 上乘眇季脇”도 “上乘”을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足太陰之筋은 전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구조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足陽明之筋의 “其直者, 上循肝, 結於膝.”이나 “其直者, 上循伏兔, 上結於髀”만 어느 정도 연결이 이상하지 않은 부분이다. ‘其直者’를 모두 분석해보면 대부분 연결이 이상한 부분에서 사용되

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지면상의 문제로 해당 부분의 연구에서 상세하게 논의될 것이다. 足陽明之筋도 문자의 의미 그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현재까지 연구의 결론이다. 정리하면 ‘其直者’는 인체가 균형을 잡는데 필요한 역학의 연장에 있는 유주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러한 균형의 역학적 흐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其直者’를 사용하였다.

‘其直者’는 표현상으로는, ‘곧게 나가는 것’으로 직역이 되지만, ‘其直者’로 그냥 두어야 원문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 ‘其直者’는 기능상으로 보면 분지가 아닌 것으로 분석되지만, 문장의 형태만을 고려하여 분지로 분류하였다. 결론적으로 ‘其直者’는 중심유주에 기반을 둔 분지형태의 주요 유주이며 역학적 연결이 존재하는 유주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其支者’는 전형적인 분지의 형태로 중심유주 또는 ‘其直者’ 중 관련된 부분 이후 바로 서술되어 있다. 전체 ‘其支者’의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足太陽之筋] “其支者, 別入結於舌本.” / “其支者, 爲目上綱, 下結於頰.” / “其支者, 從腋後外廉, 結於肩髀.” / “其支者, 入腋下, 上出缺盆, 上結於完骨.” / “其支者, 出缺盆, 邪上出於頰.”

[足少陽之筋] “其支者, 別起外輔骨, 上走脾. 前者, 結於伏兔之上, 後者, 結於尻.”

[足陽明之筋] “其支者, 結於外輔骨, 合少陽.” / “其支者, 從頰結於耳前.”

[手太陽之筋] “其支者, 後走腋後廉, 上繞肩胛, 循頸出, 走太陽之前, 結於耳後完骨.” / “其支者, 入耳中.”

[手少陽之筋] “其支者, 當曲頰入繫舌本.” / “其支者, 上曲牙, 循耳前, 屬目外眦, 上乘頰, 結於角.”

[手陽明之筋] “其支者, 繞肩胛, 挾脊.” / “其支者, 上頰, 結於頰.”

[手心主之筋] “其支者, 入腋散胸中, 結於臂.”

足太陽之筋에서는 ‘其別者’ 이후 1회, ‘其直者’ 이후 4회 나오며, 足少陽之筋은 중심유주 이후 1회, 足陽明之筋은 처음 ‘其直者’ 이후 1회, 두 번째 ‘其直者’ 이후 1회 서술되어 있다. 경근은 주요유주만 존

재하는 것은 아니어서 나무의 가지처럼 세부적 분지의 유주가 존재하며 이것을 ‘其支者’를 사용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세부 분지이기 때문에 유주가 이후로 이어지지 않고, 그 부분에서 종료된다.

따라서 전체 문장의 서술 형태로 보면 ‘其直者’로 서술된 부분의 직전에 ‘其支者’로 서술된 부분이 나왔다면, ‘其直者’는 직전 ‘其支者’로 서술된 문장에서 연속되는 것이 아니고 중심유주 또는 이전 ‘其直者’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다. ‘其支者’로 서술된 부분도 직전 문장이 ‘其支者’로 서술된 부분이라면 그 문장에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전 중심유주 또는 ‘其直者’에서 분지된 내용이다. ‘其直者’와 ‘其支者’를 나무의 형태에 비유하자면 나무의 뿌리와 하부 몸통은 중심유주이고, 중간에 가지가 나와 이를 설명하는 것이 ‘其支者’이고, 몸통이 이어지는 부분에서 다시 설명하는 것이 ‘其直者’라고 할 수 있다.

‘其支者’는 ‘그 분지’로 직역이 된다. 이러한 해석은 ‘其支者’의 중요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其支者’의 경우, ‘其直者’처럼 균형의 역학적 연결 관계에서 이어지는 유주는 아니지만, ‘其支者’ 역시 주요 유주로 판단되기 때문에 원래의 의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해석을 하지 않고 ‘其支者’로 해도 될 것이다.

‘直者’와 ‘支者’라는 분지도 있다. 둘로 갈라지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용어로 볼 수 있지만, 전체의 용례를 통해 볼 때, 단순한 방향성으로만 보기에 는 방향성이 표시된 “足少陽之筋 … 前者, 結於伏兔之上, 後者, 結於尻.”와 같은 다른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直者’의 경우는 足少陽之筋과 手太陽之筋, 手陽明之筋 등에서 4회 사용되는데, 용례는 다음과 같다.

[足少陽之筋] “直者, 上出腋, 貫缺盆, 出太陽之前, 循耳後, 上額角, 交巔上, 下走頤, 上結於頰. 支者, 結於目眚爲外維.”

[手太陽之筋] “直者, 出耳上, 下結於頤, 上屬目外眚.”

[手陽明之筋] “直者, 從肩髃上頸.” / “直者, 上出手太陽之前, 上左角, 絡頭, 下右頤.”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보면 역학적 기반이 필요한 경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즉 어떤 분지가 기능하기 위해서 이전 구조와 역학적 관련이 있는 경우 ‘直者’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手經筋에서 ‘其直者’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인체의 균형과는 무관하기 때문이고, ‘直者’를 사용한 것은 인체 균형과는 무관하지만 분지된 부분과 역학적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其內者’는 足太陰之筋에만 “其內者, 著於脊.”으로 1회 나온다. ‘其內者’는 ‘其支者’와 같은 의미로 판단되지만, 방향성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용례가 1회밖에 안되고, 관련 문장이 너무 짧은 관계로 더 이상의 분석은 어렵다.

‘其病’으로 시작하는 부분은 별도로 분석하지는 않았으나 특이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경근의 유주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 서술되어 있고, 치료법은 “治在燔鍼劫刺, 以知爲數, 以痛爲輸”가 반복된다.

결론

1. 《靈樞·經筋》은 문답식의 서술이 아닌 나열의 형식으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고, 12개의 개별 筋에 대한 서술만이 존재하는데, <經脈>, <經別>, <經水>, <骨度>와 다른 구성방식이다.
2. 경근은 경맥처럼 ‘流走’의 개념이 포함되어 분석해야 한다.
3. 각 경근의 유주는 ‘중심유주’와 ‘분지’로 분류하였다.
4. 중심유주는 모두 ‘起於~’로 시작하는 부분으로 개별 경근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유주이다. 足太陽之筋의 ‘其別者’ 부분은 예외적으로 중심유주로 분류해야 한다. ‘其別者’는 ‘중심유주 중 나누어진 부분(別)’으로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 ‘其直者’는 足太陽之筋, 足少陽之筋, 足陽明之筋, 足太陰之筋에만 나온다. ‘其直者’는 중심유주 또는 이전 ‘其直者’와 역학적 연속성이 존재하는 주요 유주로 인체 균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지만, 문장의 형태상 분지로 분류하였다.
6. ‘其支者’, ‘其內者’, ‘直者’, ‘支者’는 분지로 분류하였으며, 직전에 서술된 중심유주 또는 ‘其直者’에서 시작하는 분지이다.
7. 분지는 陽經筋과 足太陰之筋, 手心主之筋에만 존재하고, 足太陰之筋과 手心主之筋을 제외한 陰經筋은 중심유주로만 구성되어 분지가 없다.
8. 나무의 가지처럼 세부적 분지가 존재하며 이것을 ‘其支者’를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세부 분지이기 때문에 유주가 이후로 이어지지 않고, 그 부분에서 종료된다.
9. ‘直者’는 인체 균형과는 무관하지만 이전 구조와 역학적 관련이 있는 경우 사용되었다. 때문에 足少陽之筋, 手太陽之筋, 手陽明之筋에 사용되어 手經筋에도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1. Kim MS, Kim CG & Lee EY. (2020). Study on the Standard Posture of 『Yeongchu·Gyeonggeun(Lingshu·Jingjin)』.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37(1), 1-13. <https://doi.org/10.14406/acu.2020.001>
2. Kim MS, Song JK, Kim CG, Kim SR, Lee EY. Study on the Anatomical Meaning of ‘Geun(筋)’ in 『Yeongchu·Gyeonggeun(靈樞·經筋)』. The Journal of Korean Medicine 2022; 43(1): 42-59. DOI: <https://doi.org/10.13048/jkm.22005>
3. Jiebin. (1996). Leijing(shang)(photographic edition).

- Seoul, DaeSung, 150-7, 159-63, 204-6.
4. Kim SH. (2003). SunHoYeongchu(Sang). Daejeon, JuMin, 191-205. [No English title. Write it in native pronunciation.]
 5. Meridians & Acupoints Compilation Committee of Korean Oriental Medical Colleges. (2012). Principles of meridians & acupoints: A guide book for college Students. 6th ed. Daejeon: Jongryeonamu. 183.
 6. Lee SM, Jeong HY & Keum KS. (1999). A Study on the Kyung Keun Pyun of the Young Chu.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Diagnostics. 3(1), 294-332.
 7. Sim WB, Kim YD, An YN, Kim KS & Sohn IC. (2003). A study on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 twelve-Meridian Muscle and Muscles. Korean J Acupunct 20(2), 137-153.
 8. Han JW & Yook TH. (1999). A comparison of meridian muscle with muscle. The Journal of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16(1), 87-106.
 9. Tomas W. M. (2014). Anatomy Trains 3rd Edition: Myofascial Meridians for Manual and Movement Therapists. Elsevier Ltd.

ORCID

- 김민식 <https://orcid.org/0000-0003-3200-4359>
김창건 <https://orcid.org/0000-0002-6527-223X>
김소림 <https://orcid.org/0000-0002-1922-8238>
이은용 <https://orcid.org/0000-0001-5819-1602>